

#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 초기 부부에 대한 부부치료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Marital Therapy for Newly Wedded Couple in Divorce Crisis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박태영\*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태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혜선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Tai-Young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

Doctoral Course : Kim, Tae-Han

Dep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

Doctoral Course : Kim, Hye-Sun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spousal confli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 of family in couple, the intervention techniques of the family therapist, and the processes of change in couple through family therapy. The total family counseling was 9 sessions, which included individual and couple therapy. The study used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by using open coding method to find the factors. The study suggested the whole model for the study, which could be shown the processes of family therapy in this case study, by using graphical network display.

The results of study showed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husband and wif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 of family in couple, the intervention techniques of the family therapist, and the processes of change in husband through family therapy by using matrix.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many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to cause spousal conflicts and characteristics in family of origin to influence the crisis of divorce.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to treat the couples in the crisis of divorce were facilita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husband's differentiation of self from family of origin, and understanding about the perspectives of family members. As results of therapeutic intervention, there were showed the spousal change of recognition to each other, husband's differentiation of self, wife's growth of self, and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

▲주요어(Key Words) : 부부갈등(conflict of couple), 자아미분화(undifferentiation of self), 부부상담(marital therapy), 의사소통(communication), 가족경계(boundary)

---

\* 주 저 자 : 박태영 (E-mail : typark@ssu.ac.kr)

\*\* 교신저자 : 김태한 (E-mail : soultionartist@hanmail.net)

## I. 서론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만 20-30년 이상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잘살겠다는 바람으로만 이뤄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배우자 간에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거나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배우자와 자녀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Carter & McGoldrick, 1989). 결혼초기 부부가 이러한 과업을 잘 수행하였을 때에 원가족으로부터 분화된 개별적 자아감을 형성하고, 독립된 부부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에서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시기까지를 결혼 초기로 보고 있으며(김정진·임은희·권진숙, 2007), 국내의 연구 중에는 첫 자녀가 미취학 단계에 있는 시기인 결혼기간만 6년까지를 결혼 초기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방현주·이기숙,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통계청, 2007)됨을 고려하여, 결혼 초기를 결혼 5년 이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결혼초기에는 부부간 서로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역할정립 및 조정, 그리고 배우자 친족과 관계망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이 시기에 형성된 부부간 상호작용의 패턴은 전체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성경·최연실, 2006; 최정숙, 2008). 만약에 부부가 결혼초기의 과업들을 잘 성취하지 못 할 때에는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친족들과도 갈등과 불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 초기는 갈등 발생의 여지도 크지만, 적절한 개입이 전체 결혼생활유지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조성경·최연실, 2006).

통계청 자료(2008)를 통하여 2007년에 이혼한 사람들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0-4년 사이의 이혼율이 27.1%, 5-9년 사이의 이혼율이 20.5%, 10-14년 사이의 이혼율이 17.5%, 15-19년 사이의 이혼율이 14.7%, 20년 이상의 이혼율이 20.2%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결혼초기 과정은 이혼을 결정할 만큼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간의 갈등을 이루는 요인들로는 대화요인, 성격 및 가치관 요인, 원가족 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혜정·김양호, 2007; 통계청, 2007).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결혼 전에 이미 원가족에서 형성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김혜선, 1992; 유계숙 등, 2006; 전영주·이성희, 2006).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가문과 가문의 결합으로 보았다.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되면 두 배우자 뿐만 아니라 두 배우자의 친족까지도 포함한 관계망의 결합을 이루게 된다(정현숙·유계숙, 2003). 유교문화권 내에 있는 한국가정문화의 가부장적인 특성상 결혼을 하면 남자집안으로

여자가 귀속되어 가계를 계승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고수하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배우자 원가족의 문화와 관습을 강요받게 된다. 여자인 며느리 뿐만이 아니라 남자인 친아들에게도 부모님의 말씀이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혼 초기의 부부들은 개인의 습관차이, 원가족의 문화차이와 더불어 결혼 전에 상상해왔던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발생할 수 있다(조성경·최연실, 2006). 이에 선행연구들은 결혼 초기에 부부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에게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 시키고 원가족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김소아자, 2007; 천혜정·김양호, 2007).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연구에서는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과 갈등 대처방식(이영자·장영애, 2002; 이선미·전귀연, 2001), 결혼초기의 일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관계 향상에 관한 연구(방현주·이기숙, 2002; 김희진, 2005; 최정숙, 2008)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반면, 부부갈등을 겪고 있거나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 초기부부에 대한 실질적 개입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 위기에 있는 결혼 초기 부부의 갈등 발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부갈등의 배경이 되는 원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개입하는 치료적 방법과 치료를 통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상담사례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치료자는 Bowen의 가족체계 치료모델,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 가족발달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Bowen의 가족치료모델에서는 부모 특히 어머니와 자녀사이의 미분화된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가족투사 과정을 통해서 전수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치료목표를 미분화된 가족자아집합체로부터 분화되는 것에 두었다(Friedman, 1991; Papero, 1995; Goldenberg & Goldenberg, 2001). 이러한 미분화로 구성되는 삼각관계는 일시적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가족의 정서체계는 더욱 혼란스런 증상을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Goldenberg & Goldenberg, 2001). 원가족에서 형성된 관계의 패턴은 세대를 넘어 전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과 세대간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다(Harvey & Bray, 1991; Lawson, 1999).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에서는 가족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시도에 의해서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클라이언트가 제시하고 있는 불평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Shoham, et al., 1995). MRI모델은 '문제'란 오랫동안 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계속해 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한 문제행동들이 지속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행동들을 변화시키려고 행하여 왔던 방법, 즉 사람들의 '시도된 해결'에 있다고 본다(Watzlawick, et al., 1974).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감소시키려고 시도해 온 해결책이 종종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까지 한다(Goldenberg & Goldenberg, 2001). 따라서 치료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새로운 또는 다른 행동을 기존의 행동과 대체하거나, 본래의 문제행동을 '하찮은 문제'로 재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지금까지 시도해 온 해결책을 소개하는 것이다(Weakland, 1993).

가족발달이론은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이해되었다. 그러나 가족발달적 개념들은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별로 구성원들의 다양한 역할과 발달과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가족이 각 단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다른 과업에서도 성공할 것이라 가정한다(유영주 등, 2007). 생활주기는 가족치료를 발달이론에 접목시킨 것이며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에 대한 설명적인 배경이 되기 위하여 사회학으로부터 빌려온 모델이다(Nichols & Schwartz, 2002). 가족생활주기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정한 발달 단계와 단계마다 과업을 가지는 것처럼 가족 또한 발달 단계와 과업을 가지게 된다. 모든 가족은 이러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며,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적응상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가족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상의 이러한 위기가 가족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Carter & McGoldrick, 1989). 가족치료자는 클라이언트의 가족문제를 사정할 경우 반드시 그 가족이 처해 있는 가족생활주기의 문제점에 관하여 먼저 사정할 필요가 있다(박태영, 2003).

이러한 이론적인 맥락에서 치료자는 첫째, 남편과 부인이 원가족과 어느 정도의 분화 수준을 보이는지 탐색하고, 원가족과 분화정도가 현재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원가족과 미분화 문제가 자녀세대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개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치료자는 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으로 가족성원간에 전달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부부가 그동안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변화시키도록 개입하였다.

셋째, 부부는 원가족에서 독립된 성인단계에 이루어야 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인 신혼부부단계를 거쳐 어린 자녀를 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치료자는 성인단계부터 신혼부부단계에 이르기까지 미달성 과업인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부부체계 만들기

등의 과업을 현 단계에서 이룰 수 있도록 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III. 선행연구

#### 1. 부부갈등

부부갈등에 대한 개념은 갈등이론, 정신건강, 가족관계,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며, 갈등원인이나 영역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도 저마다 다르다(조성경·최연실, 2006). 그러나 부부갈등의 영역은 크게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특성, 공동생활특성, 제 삼자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부부갈등에서 개인적 특성은 배우자의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 성격불일치이며, 부부관계특성은 부부간 의사소통, 애정, 성, 배우자의 부정이며, 공동생활특성은 부부의 주거와 주택계획, 금전과 소비, 여가생활, 가사노동분담의 불일치이며, 제삼자특성은 부부 두 사람 이외의 다른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영역이다(이경희, 1997). Beckerman과 Shepherd(2002)는 부부갈등이 높은 영역은 성생활과 중요한 결정내리기, 중간갈등영역은 종교, 배우자의 원가족들, 금전이었으나, 우선 순위로 꼽은 치료적 목표는 의사소통기술들의 개선으로 들고 있다.

결혼초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반 부부들과 유사한 갈등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성격요인, 의사소통요인, 원가족 요인들이 다양한 갈등요인 중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선미·전귀연, 2001; 천혜정·김양호, 2007; 통계청, 2007). 이와 같은 부부갈등 요인들은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Carrere와 Gottman(1999)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상호교환과정에서 더 부정적이고 덜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갈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박태영(2002)은 부부치료의 사례를 다루면서 부부의 갈등의 근원적인 이유는 서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역기능적 해결방법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부부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인의 요구와 남편의 회피이다. 특히 부부의 갈등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회피 및 철수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남편의 행동은 부인의 더욱 강한 잔소리와 요구를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행동은 다시 남편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마침내 부부간에 갈등의 악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윤자, 1992; 임승락·권정혜, 1998; 이창숙·유영주, 1998).

#### 2. 원가족과 부부갈등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기도 하다. 즉, 부부의 원가족은 부부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원가족과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배우자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Carter & McGoldrick, 1989). 또한 결혼하기 이전에 원가족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결혼이후 부부의 갈등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Guerin, et al., 1987). Olson과 Hawley(1992)는 부부가 자신의 원가족과 유사한 가정을 이루거나, 혹은 원가족에 대한 반발로 정반대의 가정을 이루기 쉽고, 두 사람이 성장해온 가족의 패턴이 서로 차이가 날수록 이들의 결혼생활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조성경·최연실, 2006에서 재인용). 원가족은 핵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원가족에서 형성한 상호작용방식은 핵가족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원가족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Kerr & Bowen, 1988).

국내의 연구에서도 원가족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다.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 특성은 부부갈등의 정도와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 특성 중에서 가족규칙은 결혼초기 기혼남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기혼남성이 성과 성역할규칙에 대해서 원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결혼생활의 각 영역에서 갈등발생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규칙은 부부갈등의 해결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남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경·최연실, 2006). 남편들은 원가족의 영향력을 부인보다 더 많이 받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전춘애, 1994).

또한 가족체계의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원가족의 경험과 더불어 자아분화수준이다(김경자, 2004). 권정란과 이인수(2006)의 연구에서도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성보다는 자신의 분화정도 및 배우자의 분화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원가족건강도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는 하지만, 결혼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현재 배우자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현정·김명자, 1999). 남편의 원가족 분화정도는 부부갈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나, 부인의 원가족 분화경험은 부부갈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춘애·박성연, 1994; 서연석 1999; 전연진, 2002)

따라서 부부갈등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악순환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개인이 경험한 원가족 특성과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수준은 부부적응에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남편의 원가족 분화는 부인의 원가족분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볼 때에, 본 사례연구의 남편이 원가족과 분화되지 않은 행동을 취함으로써 부부간의 갈등이 커졌다는 점과 치료자가 남편의 원가족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사라지고 부부하위체계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점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총 9회기에 걸쳐 상담에 참여한 결혼초기 부부 한 쌍이다.

#####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이혼위기를 만드는 결혼초기 부부의 개인적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초기 부부의 원가족 특성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초기 부부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이혼위기의 결혼초기 부부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결과는 무엇인가?

##### 3. 신뢰도 검증

Patton(2002)은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수집 방법의 삼각화, 자료원의 삼각화, 연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등 다양한 삼각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상담 당시 치료자가 기록한 상담메모와 이후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담축어록을 활용하여 자료의 삼각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의 분석이 편견이나 잠재적인 선입관으로 인해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구자 간 분석내용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이 연구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분석내용이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이론의 삼각화를 추구하였다.

#####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 상담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대상자 가족 전원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내담자 가족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실명이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가명으로 변경하였다.

##### 5. 분석방법

자료분석 방법은 수집된 녹음자료에 대한 축어록과 상담도중 기록한 상담일지와 메모를 함께 사용하여 코딩을 하였다.

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들은 필사된 면접자료를 줄단위로 비교하는 분석과 자료 전체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개념은 그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라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례의 모형을 제시하였고,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복잡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분류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는데,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자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본 사례의 부부와 그 원가족에 대한 가계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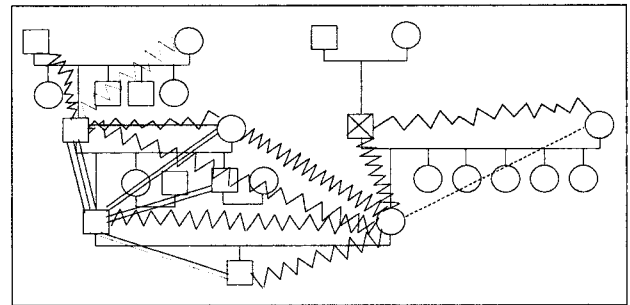
V. 결과분석

1.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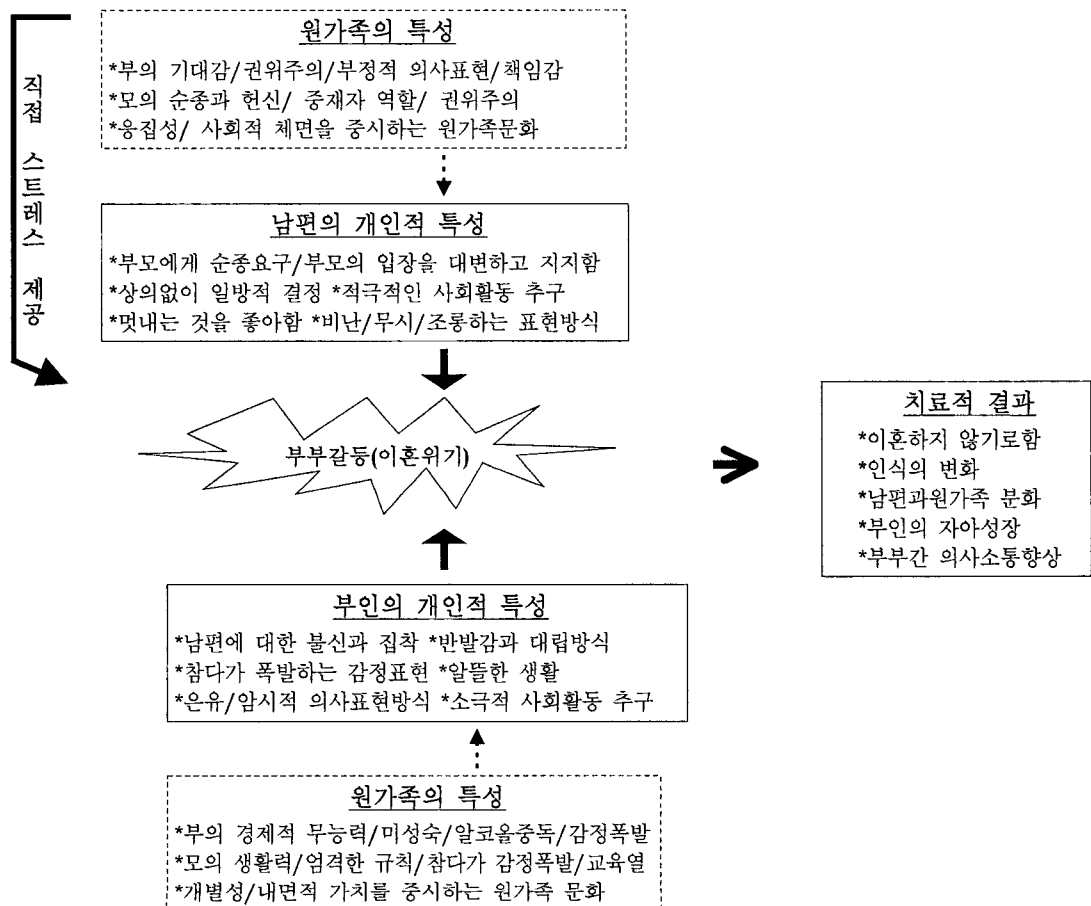
남편은 자신의 원가족과 관계가 매우 좋았으나 부인은 남편의 원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의 원가족과 적절한 분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는 독립된 새로운 가족체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남편은 아버지와 지나친 밀착관계였고, 아버지와 부인이 갈등을 겪을 때에 아버지의 편을 들었으므로 부부관계에 위기가 발생하였다. 또한 부인은 친정식구들과 적절한 지지체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 남편

2. 부부갈등(이혼위기)

본 사례의 부부는 결혼 5년차로서, 부인과 시부모의 심한 갈등에 남편이 원가족을 편들므로 인하여 이혼위기에 놓여 있었다. 표면적인 부부갈등은 추석날에 시아버지가 부인의



<그림 1> 가계도



<그림 2> 네트워크를 통한 부부치료 사례모형도

친정식구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부인은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남편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의 뺨을 때렸고, 이때부터 부부는 갈등관계에 놓였다. 그러나 이전에도 부인은 시집식구들로부터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고, 대학을 졸업한 손아랫동서와 비교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요번에 추석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 와이프가 불만사항이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는 부모님과 크게 고성이가 오가면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참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손찌검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가 커서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까지 사실 갔었는데(1회기, 남편진술).

부부치료 사례에 대한 모형의 네트워크는 <그림 2>와 같다.

### 3. 부부갈등을 만드는 개인적 특성

#### 1) 남편의 개인적 특성

남편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첫째, 남편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순종하고 불만이 있어도 부인에게 참고 이해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남편은 부인이 시부모와 갈등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인과 대화할 때에 시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둘째, 남편은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부인과 상의하기 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였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도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먼저 구입하고, 부인에게 나중에 통보하는 식이었다.

셋째, 남편은 직장생활과 사회적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남편은 대학의 동창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으며, 1주일에 한 번 씩은 지방의 도시로 가서 사업에 관련된 고객들을 만났다. 일요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았고, 평일은 보통 밤 12시에 들어오거나 새벽이 되어서 들어오곤 하였다.

넷째, 남편은 화려한 것과 멋 내는 것을 좋아하여 이러한 물건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구입하였다. 남편은 고가의

물건들을 사면서 이것은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성공적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말하였다.

다섯째, 남편은 부인에게 비난, 무시, 조롱하는 의사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남편은 부인의 감정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부인은 마음에 상처를 받곤 하였다. 이런 남편의 태도를 본받아서 네 살된 아들도 어머니인 부인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남편은 부인에게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 2) 부인의 개인적 특성

부인의 개인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첫째, 부인은 남편을 불신하면서 동시에 남편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었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으며,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화로 계속 파악하였다. 부인은 남편에게 시부모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고, 남편이 자주 출장을 떠나고 집을 비우면 부인은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하게 느꼈다.

둘째, 부인은 자신의 틀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감을 가졌으며, 상대방과 대립하는 태도를 보였다. 스스로 억울하다거나 피해본다고 생각되면 언쟁을 벌이거나 다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부인은 시아버지가 친정식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자 밤을 새워서 시아버지에게 따지는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셋째, 부인은 감정을 참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식으로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면서 참지만 오래가지 않고 감정의 폭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부인의 감정폭발은 남편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부인은 화를 폭발시키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풀리기도 하였는데, 남편은 부인의 이러한 감정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당황스러워하였다.

넷째, 부인은 남편에 비해서 비교적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다. 부인은 이사를 가면서 쓰던 장롱과 가구를 버리기 아까워서 친정

<표 1> 남편의 개인적 특성

구 분	특 성
배우자에 대한 태도	- 부모에게 순종적 태도 강요
의사표현	- 비난, 무시, 조롱하는 표현방식
의사결정	- 일방적인 의사결정
사회생활	- 대외활동 및 폭넓은 대인관계 - 화려하고 멋내는 것을 좋아함

<표 2> 부인의 개인적 특성

구 분	특 성
배우자에 대한 태도	- 남편에 대한 불신과 집착의 태도
의사표현	- 참다가 감정폭발하는 표현방식 -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표현방식
의사결정	- 강한 반발감과 대립, 타협하지 못함
사회생활	- 소극적인 사회생활과 좁은 대인관계 - 알뜰하고 검소한 생활방식

어머니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며, 예쁜 양념병들은 씻어서 재사용하기도 하였다. 결혼 전에는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금을 들고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부인은 대화를 할 때에 은유적이고, 암시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타인과 갈등을 피해보려는 우회적 방식이었으나 오히려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여섯째, 부인은 사회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지 않았으며, 집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았다. 조용히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의 뒷바라지하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알고 있었다.

4. 원가족의 특성

1) 남편의 원가족 특성

(1) 남편의 아버지 특성

남편의 아버지 특성은 <표 3>과 같다. 첫째,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남편이 장남이라는 것과 대학을 나왔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과 자주 통화를 하고자 하였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술먹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다. 아버지는 남편과 같이 놀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었다. 또한 장남으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었다.

둘째, 남편의 아버지는 권위주의적 태도로 가족을 대하였다. 가족들은 아무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대항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남편도 자신처럼 부인을 휘어잡아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였다.

셋째, 남편의 아버지는 비난, 모욕, 통제 등과 같은 역기능적 의사표현을 하였다. 아버지는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였고,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를 비하하는 욕을 하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가족생활에서도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다. 가정의 경제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돈을 타서 써야했다. 가족 앞에서 부인의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부인을 비아냥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반기를 들고,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표 3> 남편의 아버지 특성

구 분	특 성
가족에 대한 태도	- 권위주의적 태도 - 남편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친밀감 - 지나친 책임감
의사표현방식	- 비난, 모욕, 통제를 사용하는 의사표현

넷째, 남편의 아버지는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려서 무능력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일찍부터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부모와 동생들을 돌보았다. 아버지는 확대가족구성원들이 갈등없이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과도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2) 남편의 어머니 특성

남편의 어머니 특성은 <표 4>와 같다. 첫째, 남편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하면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내조자의 역할을 하였고, 자신의 삶을 주장하거나 주도하지 못하였다. 농사를 짓고, 살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은 아버지가 이혼을 하자 남편의 사촌동생 2명을 키웠으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머니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또한 아버지가 돈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었고, 자신의 필요한 것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였다.

둘째, 남편의 어머니는 부자갈등, 고부갈등에 대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부인에 대해서 분노하자 아버지를 말리면서 무마시키기도 하였고, 부부에게 전화해서 부인과 잘못했다고 빌러오라고 달래기도 하였다. 고부간의 갈등이 커지자 화해의 의미로 부인의 생일에 햅쌀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셋째, 남편의 어머니는 부인에 대하여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졌다. 가족에게는 순종적이고 헌신적 삶을 살았던 어머니는 부인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는 부인에게 물건을 줄 때 던져서 주었고, 자신과 갈등이 생기자 부인에게 잘못을 빌라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이런 권위주의적 태도는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고, 부인과 단둘이 있을 때에 나타났기 때문에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특성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표 4> 참조).

(3) 남편의 원가족 문화

남편의 원가족 문화는 <표 5>와 같다. 첫째, 남편의 원가족은 가족성원의 응집력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집안

<표 4> 남편의 어머니 특성

구 분	특 성
가족에 대한 태도	- 부자갈등, 고부갈등의 중재자 - 부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태도
의사표현방식	- 순종과 헌신의 전통적 여성(표현하지 않음)

&lt;표 5&gt; 남편의 원가족 문화

구 분	특 성
응집력	- 가족성원들의 응집력 강조
가치관	- 사회적 체면의 중시

&lt;표 7&gt; 부인의 어머니 특성

구 분	특 성
가족에 대한 태도	- 강한 생활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짐 -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가짐 - 엄격한 생활방식의 강조
의사표현방식	- 감정을 속으로 삭히다가 폭발

에 행사가 있으면 모든 확대가족이 다 모여야 했고, 가족의 화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문제는 곧 자녀들의 문제로 여기고 부모의 문제를 자녀들이 해결해야만 했고, 부모 역시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였다. 가족체계 안에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남편과 부인 사이에 나누어진 이야기가 온 친척에게 알려지곤 하였다. 부인이 사적으로 아버지에게 쓴 편지글을 작은 아버지도 함께 읽었다.

둘째, 가족구성원들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남편은 고급 물품을 선호하였고, 외양적인 멋을 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였다. 부모들은 학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부인의 학벌이 남편보다 낮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였고, 대학 나온 손아랫동생을 편애하기도 하였다. 어머니는 동네사람들에게 부인이 대학을 나왔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부인은 어머니가 거짓말로 자신의 학벌을 소개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자 어머니는 그것을 부인하면서 부인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표 5> 참조).

## 2) 부인의 원가족 특성

### (1) 부인의 아버지 특성

부인의 아버지 특성은 <표 6>과 같다. 첫째, 부인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상경하였기 때문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독자였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응석받이 태도를 보여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다.

둘째, 부인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알코올로 인한 간경화 때문에 사망하였다.

셋째, 부인의 아버지는 잔소리와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였으며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였다(<표 6> 참조).

&lt;표 6&gt; 부인의 아버지 특성

구 분	특 성
가족에 대한 태도	- 경제적 무능력과 미성숙한 성격으로 가족을 돌보지 못함 - 알코올중독 및 알코올 질환으로 사망
의사표현방식	- 잔소리 폭력적 방식으로 감정표현

&lt;표 8&gt; 부인의 원가족 문화

구 분	특 성
응집력	- 성원들의 개별성을 중시(서로 간섭하지 않음)
가치관	- 종교 및 내면적 가치의 중시

### (2) 부인의 어머니 특성

부인의 어머니 특성은 <표 7>과 같다. 첫째, 부인의 어머니는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다양한 직업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실질적인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부인의 어머니는 엄격한 생활방식을 강조하였는데, 시간약속이나 자기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였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자녀들에게 요구하였다.

셋째, 부인의 어머니는 감정을 속으로 삭이거나 폭발하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속으로 참다가 안 되면 감정이 폭발하였고, 자녀들은 무서워하였다.

넷째, 부인의 어머니는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였지만 자녀들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자녀들은 큰딸인 부인을 제외하고 모두 스스로 벌어서 대학에 들어갔다(<표 7> 참조).

### (3) 부인의 원가족 문화

부인의 원가족 문화는 <표 8>과 같다. 첫째, 부인의 원가족은 가족성원의 개별성을 중시하여 서로의 삶에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다. 자녀들은 각자가 알아서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갔고, 부모나 가족들의 도움이나 영향을 적게 받았다. 부인도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준비하였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

둘째, 부인의 원가족 문화는 종교 및 내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부인의 동생은 수도자, 특수교사가 되기도 했고, 막내 동생도 특수교사가 되고자 하였다. 온 가족이 가톨릭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기일에는 제사 대신에 미사를 드렸다(<표 8> 참조).



## 5. 치료적 개입방법

## 1) 부부간 의사소통의 촉진

첫째, 치료자는 부부간 순환적 의사소통을 유도하였다. 지금까지 부부는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치료자는 치료장면에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대화를 중단시킬 때에 개입하여 끝까지 듣도록 하였으며, 한쪽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쪽이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lt;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가로막기의 차단&gt;

남 편: 일반적으로 만약에 겨울옷이 정말 없어서 몇 벌 정도 필요하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옷 요번에 새로 샀는데 이런 거 산다고 할 때 제가 뭐.

부 인: (남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자기 옷 사고서 사라 그런 거지 내가 먼저 샀다 그랬으면은

치료자: (부인을 향해서) 잠깐만 먼저 들으시구요.

남 편: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별 무리 없어요 근데 이제 명주 엄마가 그 날 옷을 20몇 만원 짜리 산 건 제가 옷을 30만원 짜리를 자기 생각 보다 저기 한걸 샀으니까 그거에 대한 복수다 이거죠. (7회기 상담).

치료자는 부부의 순환적 의사소통을 만들기 위하여 배우자의 의견에 대한 다른 배우자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서로의 의견들이 가지는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lt;의견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gt;

남 편: (생략) 그걸 제 생각은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좋은 애길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걸 자꾸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이걸, 그래 이왕이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 입장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서운한 거죠

치료자: 그렇죠 서운한 거죠, 한마디로 내 편 안 들어주고, 내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남편이 항상 시댁식구 입장만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변인의 역할. 자, 와이프께서는 어떠세요?

부 인: 예. 애기 아빠 말한 대로 교수님 말한 대로 진짜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댁 어른들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해던

거는 제가 가면은 교수님 그런 거를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어요 녹음기가 아닌 이상에. 그 작은 아버지, 작은어머니, 시할머니 도련님까지 조차도 그 말투에서 표현감정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1회기 상담).

치료자는 부부에게 회기를 시작할 때마다 지난 회기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시작하였다.

## &lt;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기&gt;

치료자: 아버님한테 전화 오시는 건 어떠세요?

남 편: 요즘에는 안 오시고요. 요즘에는 자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자: 아~ 아버님이요?

남 편: 예

치료자: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남 편: 아버지도 지난번에 한번 통화를 우연찮게 했는데 아버지도 이제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는 나도 요즘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뭐 특별하게 안 할 테니까...그 다음 소식은 별로 없으신 것.....

치료자: 그럼 명주 엄마에 대해서는 와서 해라 마라...

남 편: 그런 건 없으세요. (5회기 상담).

내담자들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치료자가 변화를 지적하였고, 부부는 이를 통하여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지지하는 방식들은 불평과 문제를 다루는 대화방식보다 훨씬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이끌고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 &lt;이야기 주제를 변화에 초점두기&gt;

치료자: 근데 명주 아빠가 분명 변하셨어요. 뭐가 변했다면 옛날 같았으면 엄마 아버지 대변자야. 그런데 지금은 안그래요.

부 인: 예 맞아요.

치료자: 명주 아빠가 이제는 최소한 가만히 있고 와이프 입장을 들어주려고 해요.

부 인: 예. 말을 안 하던지, 그냥 가만히 있던지.

치료자: 그렇죠? 그거는 이 쪽 입장에서는 굉장한 변화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것도 굉장한 변환데 인정을 해줘 그냥. 명주 아빠 그랬을 때 인정 해 줬냐니까 인정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변화라는 것도 별로 깨닫지 못 하셨다 라고 그러더라고. 제 얘기 듣고 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명주 아빠가 정말 변했네요 라고 얘기하

시더라고. 그럼 그때에 고맙다 당신 이렇게 변해  
줘서 고맙다 칭찬도 못 했나니까 못했데. 그런  
건 또 저런걸 봐야 돼.

부 인: 그거 도움이 됐어요. 그런 것도. (4회기 상담).

치료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 신뢰와 사랑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부부 간의 긍정적인 면을 상대방에게 말하도록 유도  
하였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대화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잘 이어지지 않을 때에 치료자는 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치료자는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하였다.

#### <신뢰에 대한 확인>

부 인: 남편은 저랑은 틀려요. 말도 원체 잘하는 데다가...  
(생략) 미심쩍은 것도 아직도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치료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쭙 볼게요. 명주 아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하세요?

부 인: 믿긴 믿어요.

치료자: 믿어요?

부 인: 예

치료자: 그죠?

부 인: 예. (4회기 상담).

#### <사랑에 대한 확인>

치료자: 와이프가 남편을 엄청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까?

남 편: 예 그건 맞습니다. 가끔 저에게 편지도 쓰고, 이제  
...제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사회활동 하는 남자  
들은 피곤하죠.

치료자: 피곤하죠. 그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명주  
엄마를 사랑하세요?

남 편: 예. 저도 뭐 지금은 명주 엄마를 보면 집안 살림도  
깔끔하게 잘 하고 저에 대해서만큼은 참 잘합니다.  
저희 집하고 문제가.. 저희 형제들... (2회기 상담).

둘째, 치료자는 부부에게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도록 이끌었  
다. 실제 생활에서 남편과 부인이 배우자를 서로 돌보고 행동으  
로 서로를 편들고 지지하고 격려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는 남편이 부인과 대화에서 시부모의 편을 지지하고 대변하였  
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는 대화  
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편들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 <편들어주는 대화를 하기>

부 인: (치료자의 말에 동의하며) 맞아요.

남 편: (치료자의 말에 반발하며) 아버지가 이제 말을.....

치료자: 예. 그게 있고. 그럼 저는 지금 이거예요. 동생  
간의 관계가 됐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됐든 그  
양반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 양반 얘기가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명주 엄마 입장에서 들으면 또  
맞아. 명주 아빠 입장에서 들으면 또 맞아. 저는  
누가 정확히 맞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명주 엄마하고 저하고  
얘기하자나요, 그럼 명주 엄마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명주 엄마는 여기 오셔서 뭐 느끼세요?  
대화 나누면서 시원한 것 못 느끼세요?

부 인: 예. 시원하죠.

치료자: 이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거죠. (4회기 상담).

또한 치료자는 한 사람이 상대방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불평을 토로할 때에 치료자는 변화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변화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낮추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내담자들에게 자신의 문제의 해결과정은 느리고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 <변화는 느리다는 것을 강조하기 >

치료자: 대화하는 방식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조금 달라졌  
지만 이게 쉽게 쉽게 확확 변하진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요렇게 한 번씩 저랑 대화 나누면  
얘기하려다가도 조금 이제 아~ 이거는 아닌 데라  
는 생각이 있지요. 서로가...

남 편: 예 맞습니다.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 받아 들일테  
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하고

부 인: 예전 같으면 저도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 막 확 180도로  
그렇진 않아요.

치료자: 여긴 마술 부리는 데가 아니예요. 조금씩 조금씩  
변하지만 악화된 것도 조금씩 조금씩 악화된 겁  
니다. 그러다가 덩어리 굴러지고 기분이 나쁘더  
라도 표현이 가능하고 대화가 그래도 불편하지만  
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9회기 상담).

셋째, 치료자는 부부에게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표현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치료자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강조하였다.

<표현하는 방식의 중요성>

치료자: 지금 이제 전 될 보냐면요. 상담하다 보면 표현하는데 있어서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들 쪽 연결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표현하는데 있어서 표현을 보면 사회적 수준의 메시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그니까 내용중심의 언어가 있고, 그 뒤에 이면적인 언어가 있어요. 심리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개를 같이 해버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럼 꼬여져 막. 예를 간단하게 들면 내가 시험을 잘 못봤는데 엄마 아빠가 잘 한다 잘 한다 잘 해. 그러면은 말은 잘한다만 긍정적인 얘기죠.

남 편: 그렇죠.

치료자: 표정은 부정이에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 인: 예.

치료자: 그러면 자녀들은 그 표현내용을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제일 흔한 게 뭐 잘못했을 때 나가 안 나가 새끼야. 근데 애가 나가. 어려서 나가잖아요. 그럼 나갈 때 부모들이 패버려요. 나간다고 패요. 그죠?

남 편: 하하하하. (5회기 상담).

치료자는 표현하는 방법에서 무조건 솔직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거나 자극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빼거나 완곡하게 표현하도록 조언하기도 하였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빼거나 완곡하게 표현하기>

남 편: 얘기를 안 하는 편입니다. 가능하면. 얘기해봐야 시끄럽기만 한니까.

치료자: 그니까 남자로서 저도 많이 실수를 했는데 불필요하게 양쪽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는 빼거나 아니면 완곡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잘 못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찍히고 우리 와이프한테 찍히더라고요. 그것도 결혼 생활 15년 쯤 되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 솔직한 답시고 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양쪽 싸움질 시켜버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변했냐면 거의 무조건 우리 와이프 편이에요. 거의 무조건. 그래야지 내가 편해.

부 인: 그럼 더 잘하게 될 것 같아요.

치료자: 와이프가 잘 하죠. 당연히 잘 하죠.

부 인: 그냥 또 안쓰러운 것도 있고.

치료자: 그렇죠.

부 인: 그냥 겉으로.. 속마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겉으로라도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쓰럽기 때문에...(4회기 상담).

넷째, 치료자는 내담자들에게 지금까지 내담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해결책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치료자는 서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방식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방식들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비효과적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방식>

치료자: 그럼 뭐... 지금 이 어머니 아버지 시대 문제만 딱 걸렸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케이스는. 그렇게 뭐 많이 걸릴 케이스 같지도 않아요. 조금만 말하는 방법 좀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말하는 방법을 조금만 변화시키시면 돼. 지금까지 시대 식구와 관련 돼 가지고 와이프하고 대화할 때 보면 계속 불쾌하고 기분만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남 편: 예 그렇죠.

치료자: 그 방법 갖고 계속 시도를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방법 갖고, 해결 할 수 없는 그 방법 갖고 두 분이 시도를 했을 거예요. 무언으로 응답한다거나 '니가 참어'. 그럼 이쪽도 뽀루통 해 가지고 뭐라고 나온다거나 되 치는

부 인: (작게) 예 맞아요.

치료자: 이쪽은 또 되쳐. 그래서 서로 불쾌하고 그날 밤 성교 하고 싶어도 안해. 그 방법 갖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방법을 계속 시도했다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이제 점차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와 대화하면서 바뀌실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도 이제 변하고 이해하세요?

부 인: 예. (1회기 상담).

또한 치료자는 서로 갈등이 생기는 이면에는 사건의 잘못이 있지 않고,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거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재명명하였다. 즉, 부부간에 바라보는 렌즈의 차이라고 재해석하였다.

<렌즈의 차이>

치료자: 이게 100% 옳은 건 아니지만 한 번 보자 이거야. 여기 와서 보자. 뭐냐면 판정승을 하고 싶어서. 근데 명주 아빠가 틀린 거 없고 명주 엄마도 틀린 거 없는 게 뭐냐면 명주 아빠가 보는 렌즈하고 명주 엄마가 보는 렌즈가 다르고 관계가 서로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당신 너무 민감하다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방식이 열 받게 만들어. (9회기 상담).

또한 치료자는 부부갈등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부인이나 남편은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의미를 전환시켜 주기도 하였다.

#### <의미를 전환시킴>

부 인: 싸울 땐 그랬어요. 내가 번 돈은 내가 알아서 쓴다 너는 저기 뭐야 니가 그렇게 쓸 이유가 뭐가 있냐. 집에서 살림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사도 신경이 쓰이죠.

치료자 : 근데 명주 아빠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셨을 거 아니냐.

남 편: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바구니가 보이니까 어~ 바구니 샀네 라고 얘기한 걸 갖다가

치료자: 그니까 나는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 데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그니까 그게 크게 와서 각인이 되 버린 거지. 딱. 그니까 돈 쓸 때도 신경이 쓰일 테고

부 인: 예 쇼핑할 때도 그래요. (7회기 상담).

#### 2) 자아분화에 대한 강조

치료자는 부부가 자아분화를 강조하고 부부가 자아분화를 시도하도록 하였다. 첫째, 치료자는 남편에게 원가족과 분화과정의 엄청나게 힘들다는 점을 공감하였다.

#### <분화의 어려움>

치료자: (부부갈등있었던 다른 사례를 소개하고 나서) 어머니를 분가해라. 그 와이프가 있는 전셋집에 어머니가 가고 와이프를 갖다가 집으로 들여라. 그래서 그 부부는 지금 잘 살아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 그 어머니는 뭐래나면 썩썩해 해. 내가 전화통화해서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자네도 내 나이 돼 보게나. 돼 보게나. 참 배신감만 느끼네.' 아들이지만 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한마디로 내쫓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 편: 그렇죠.

치료자: 명주 아빠는 사실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심리적인 분리가 필요한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해. 제가 보는 게 그게 부부관계가 살고 애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랬다고 단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식 노릇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제 삶을 떨어뜨리자 이거죠. 그게 성격적이라는 거죠. 근데 무지 괴로워해요. 이쪽이 남편들이 대부분 다 이 과정에. (5회기 상담).

치료자는 핵가족이 성장하고, 부부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는 원가족과 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 <분화의 강조>

치료자: 명주 아빠는 지금 장남의 역할만 할 때는 지나갔다는 거죠...지금 이게 뭐냐면 한국문화가 걸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나라 남자들 장남인 경우는 더해요. 무슨 애긴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고생해서 나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줬어...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것 아는데 그게 너무 크게 좌우해 그게 이 머리서 확 튀어버려. 근데 저를 찾아오는 많은 케이스들이 보면 시댁문제하고 결부돼있어요. 거의 다 별별 증상이 다 나타나는데 그게 시댁 식구 들하고 갈등. 남편이 원가족 원가족이란게 뭐냐면은 어머님 아버님 동생들...그 관계에서 분리가 안 돼있어...그면 지금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게 뭐냐면...와이프는 그거예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을 했으면 내 얘기를 좀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부 인: 예 맞아요..

치료자: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원가족과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돼. 여기서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더 악화돼. (1회기 상담).

분화는 부모와 단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켰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원가족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였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고분고분 말듣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치료자는 부부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것이며, 태일의 상황이 아니라 양자를 포함하는 상황으로 설명하였다.

#### <단절이 아닌 축의 이동으로서 분화>

치료자: 이 상태에서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상의할 상태가 아니고 모든 걸 부부중심을 바꿔야 되는데 워낙 효자다 보니까 아직도 부모로부터 못 떨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딱 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 자식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부모 관계는 유지하지만 이 관계가 조금 얽어 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부 인, 남 편: 예. (4회기 상담).

둘째 치료자는 가족치료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치료자는 자아분화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였고, 책을 통해서 부부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 보도록 하였다.

#### <자아분화에 관한 책소개>

치료자: 여성들 관계분화, 요 책이 뭐냐면 아버님처럼 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분화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 우리 자아 내 감정적인 자아가 있고 지적인 자아가 있는데 감정적인 자아가 지적인 자아를 컨트롤 해 버려. 예를 들어서 명주 엄마 같은 경우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남편한테 불안해. 그 저변에는 분리가 안 됐다 거든요. 분리가 안 되면 나타나는 게 사사건건 간섭해. 챙겨요.

남 편: 예 맞습니다. (2회기 상담).

가족생활주기를 설명하면서, 남편이 어린자녀가 있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부모와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였다.

#### <가족생활주기>

치료자: 이 가치관과 윤리관에서는 용납이 안돼요...그게... 그니까 이거예요...이 가족생활주기 라는게 있거든요. 부부관계도 가족관계도 가족 생활 주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결혼하시기 전에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신혼부부단계가 있고, 어린 자녀를 둔 단계가 있고, 학년기 자녀를 둔 단계가 있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족도 이렇게 가족 생활 주기가 있는데 본인도 어렸을 때 7살 때, 10살 때, 20살 때, 7살 대 정신 연령 육체적인 연령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족도 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바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주 아빠는 결혼하기 전에는 장남이고 효자였어요. 효자. 그거는 그때는 좋았어. 근데 결혼하셨으면 신혼부부단계면 고가서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을 하셔야돼 남편의 역할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겠지. 비중이 단절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여기 있으면 8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 작은아버지 잘 모셔야 돼. 결혼하면 에너지가 한 6 7 정도는 와이프한테 와야되고 한 3,4

정도는 부모한테 가야돼 근데 그걸 바꾸지 않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면 가족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생략). (1회기 상담).

또한 원가족과 미분화된 부부관계로 인하여 부부는 자녀들과 삼각관계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또한 자녀들의 역기능적 증상을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삼각관계>

치료자: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식들이 끼어들어요 반드시 끼어듭니다. (이후 삼각관계의 사례설명 내용은 생략)

남 편: 음...

치료자: 이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거리가 켈 멀고 자녀들이 가운데 끼어 들어가요. 참 신기합니다. 자녀들이 꼭 가운데 끼어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자녀가 줄면 요거는 아빠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밀착관계로 들어가고 엄마하고 딸하고 밀착관계 이 상담내용도 그렇고 그림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면 삼각관계가 두 개가 들어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관계면 요쪽의 관계조차 애로 인해 가지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하고 삼각관계가 하나 형성이 되고 요쪽은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 딸하고 요쪽하고 밀착관계야. 그러면 요쪽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요기 또 삼각관계야. 두 개 삼각관계야.

부 인: 진짜..

치료자: 그죠?

부 인: 예

치료자: 요기서 자식들이 이 부부.. 이게 이제 부부하위 체계하고 자녀 하위체계인데 자녀하위체계가 부부하위체계가 강화되면서 떨어져 나오고 애들의 삶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더 벌어진다 요 쪽에서 이게 경계선이 생긴다고 이해하세요?

부 인,남 편: 예

치료자: 그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가운데 들어올 필요가 없어. 엄마아빠가 잘 놀아. 그래 우리 딸내미는 집에서 걸을 때 보면요. 뛰어다니다니깐요. 이러면서 뛰어다녀요. 걷는 게 왜? 엄마아빠는 잘 놀아 둘이 자기가 신경 쓸게 없어 자기 생활만 해도 충분해.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이 증상이 나타나. 엄마아빠가 불안하니까 자기 불안이 증상이야. 명주 같은 경우

도 양육문제에 있어서 아빠방식이 있고 엄마방식이 이제 조율이 되어 되는데 이제 요쪽이 팽팽히 맞서면 명주 가운데서 놀아나요.

부 인: 저도 그게 참 걱정돼요. (8회기 상담).

셋째는 실제사례의 소개를 하였다. 치료자는 부부의 이해를 돕고,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아분화에 관련된 유사한 사례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였다.

#### <유사한 사례의 소개>

치료자: 제가요 지금 케이스들 중에서...위에 누나가 둘이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있는데 효자라. 효자. 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어머니 무릎 베고 있고, 지금 나이가 마흔... 사십대 초반인데. 근데 그 부인이 돌아버리는 거야. 시댁식구들 땀에. 남편이 늘 시어머니 편이야. 그러면 그 시대만 갔다 오면 돌아버려. 그리고 남편한테 쏘아대면은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떤 사람인데.. 니가 살아봤자 몇 년 살았나? 그 부모님이 바뀌나? 살면 그렇지 몇 년 살았나?... 십년 더 살겠나? 니가 참고 살아라. 이거거든요.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엄마 아버지 진짜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쓸데없는 소리하지마. 입을 확 다물게 되는 거야. (1회기 상담).

치료자는 자신의 경험을 노출하여 자아분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 <치료자의 자기노출>

치료자: (웃으며) 그니까... 그게 이제 방법론이거든요. 어떻게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제가 저도 살가운 아들이었거든요. 막내아들 딸 같은 아들인데, 오늘도 우리 어머니 가서 모셔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하고 집 옮기는 문제 때문에 돈도 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은행가서 그거 일 땀에 엄마 모셔오고 우리 와이프는 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효자라는 거 알아요. 옛날부터 타고난. 근데 이런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입장을 내가 대변하진 않아. 우리 와이프가 위암수술.. 제가 말씀드렸죠?

남 편: 예.

치료자: 위암 수술 아니었으면 아마 같이 살았을 거야. 우리 와이프한테 엄마한테 전화하라는 얘기 일체 안 해요. 일년에 한번도 안 할 걸요. 우리 와이

프가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안 해요.그래도 가만히 나뉘요. 그러면 뭐 해달라고도 거의 안 해. 어찌다 한번 엄마 빈대떡 좀 해다 드리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면 오늘도 엄마를 모셔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토요일 날 오시면 토요일 날 주무시고 일요일 날 주무시고 가서.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룰이라 그럴까 압력 같은 게 있는 거야. 갈 때가 됐다 가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어머니가 요즘 또 우리들한테 잘해. 돈을 얻어 쓰시니까 신경을 쓰셔. 그러니까 그게 돈 때문에 우리가 풀려진 것보다도 우리를 더 배려해 주고 있다는 걸 느껴. 엄마가 좀 변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난 또 생각이 뭐냐면 요번에 엄마 오셨을 때 조금 며칠 계시다 가시면 어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고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고....

남 편: 하하하하

치료자: 옛날 같았으면 조금 시큰둥하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와서 며칠 더 계시면 좋아. 혼자 적적하게 지내는 것 보다. 아들이니까. (4회기 상담).

넷째, 치료자는 원가족과 분화시키고 부부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자신의 부모와 부인간의 갈등이 생길 때에 남편이 참여하여 부인을 편드는 방법을 예로 설명하였다.

####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치료자: 왜냐면 효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명주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 삶은 어머니 아버지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거를 결정하기 시작해야 돼.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 요번에 말고 지난번 작년 추석 때 내가 우리 형네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낙지전골을 끓였어. 딱 내놓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또 갖고 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뭐 하려고 낙지전골을 했으면 됐지 김치찌개를 왜하냐. 그렇게 얘길 해. 그러면 명주 아빠는 어떡해? 그러면 어떡해? 보통?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어머니나 아버지..

남 편: 뭐 그러면...그냥 뭐..

치료자: 가만있죠?

남 편: 예...

치료자: 저는 어떡하냐면.... 엄마 내가 끓이라고 했어.

부 인: (작게)맞아요...

치료자: 그니까 내가 막는 거야 미리. 엄마 내가 그러라고 했어. 우리 어머니가 속으로는 요즘의 새끼 저 새끼 지 여편네 치마폭 속에서... 그래서 부인의 입장은 제가 볼 때 간단합니다. 내 편 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 인: 한번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만이라도. (1회기 상담).

이전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설명하고 남편의 기대수준을 낮추도록 하였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밀착되고 미분화된 상태로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치료자: 처음처럼은 안 돼지만 그래도 만나서 불쾌하지 않고 조금 거리를 두더라도 그래도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로서 겉모양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 그 정도를 원하셔야지 옛날처럼 짹짹 닦고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욕심이고 지금 변화되는데 있어서 과거로 회기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남 편: 예. 그다음에 명주 엄마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쪽이 저도 어떻게 보면 명주 엄마를 이해하기 보다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않았나 라는 반성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명주 엄마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고 덕분에 이제 한 갈라설뿐 한 가정이 어찌됐건 간에 다시 이렇게 추스러지는 단계로 온건 교수님과 의 만남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상담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마음이 후련하고 가볍습니다. (9회기 상담).

명절 때에 시부모와 갈등을 염려하여 같이 귀향하기를 거부하는 부인을 놔두고, 남편만 시골에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인 앞에서 남편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의지의 확인>

치료자: 근데 명주 아빠가 그 방어막이 되시겠어요?

남 편: 제가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다...

치료자: 다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남 편: 아! 예! 지금 그 생각 있습니다.

치료자: 예를 들면 신정 때

남 편: 그렇죠.

치료자: 안 가신다

남 편: 예 명절. 저희는 뭐 구정 명절이니까

치료자: 구정 때도 안 가시겠다.

남 편: 예. (3회기 상담).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남편이 부모의 입장을 해석하기 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도록 하였다.

<해석자 역할의 포기>

치료자: 아~ 그건 그렇게는 다 안돼. 말씀은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며느리는 그렇게 못 느껴요.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명주아빠가 해석해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부 인: 예 맞아요. 교수님

치료자: 나는 당신이 설명자 해석자의 역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가 됐든 시동생이 됐든 뭐라고 하면 최소한도 가만히 있던지...(9회기 상담).

아버지의 간섭에 대해서도 남편이 자기주장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자기주장>

치료자: 그건 왜 그러냐면 아버님 자체가 자라올 때 과도한 역할기능하고 챙기는 역할을 했어요. 자기 혼자 추스르고 와이프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냐. 그 게 몸에 배어버려. (생략) 제가 왜 아버님 그 할아버지들까지 물었냐면 무엇 때문에 이러실 수밖에 없냐가 나오잖아요. 내 아들을 일일이 챙기는 거. 근데 아버님은 내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못하고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 반대로 더 잘 챙기는 거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는 우리 김 선생하고 아버님하고 관계에서 이제는 조금... 아버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남 편:(웃음)

치료자: 와이프하고 관계에서는 와이프 입장에서 와이프하고 통하시라는 거죠. 말은 옛날처럼 하지만 속으로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아버님도 느껴요. 아~ 이 새끼가 지 여편네 치마폭 속에서 노는구나. 포기하게 되는 거죠. (2회기 상담).

3) 타인의 관점이해

첫째, 치료자는 부부의 상호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치료자가 남편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부인에게

대변하고, 부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을 남편에게 대변함으로써 서로를 잘 이해하도록 하였다.

<부인의 입장대변>

치료자: 그렇지만 제가 누구 편은 아닙니다. 명주 엄마 입장에서는 .... 명주 맞습니까?

남 편: 예.

치료자: 명주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는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는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그 동서 될 사람하고도 자기하고 비교하고 자기는 자기 편에는 가면 열심히 잘 했잖아요. 잘도 치우고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깎아 내리잖아요.

남 편: 그렇죠.

치료자: 그 다음에 지 올케까지 합세를 했네. 근데 남편이 들어왔어. 가운데 말려 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가만히 가는 거예요. 부인을 열 받은 거야. 자기편 안 들어주고 분명히 어머니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야. 잘못 했더라도 당신이 소리 지른 건 잘못했고 시어머인데 그러면 되냐 라고 야단을 친 거야. 뭐라한거야...

남 편: 대부분... 그렇죠?

치료자: 대부분 그래요....(2회기 상담).

<남편의 입장대변>

부 인: 근데 그게 요번 일로다가 예전에 그 저기 이번 말고 전에 있을 사건에도 자기가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당시 막아줄게 막 그렇게 했던 건 줄 알았어요.

치료자: 그 말 자체가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말은 본심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부 인: 예 본심이라서 믿은 거예요. 제가

치료자: 본심인데. 본심이라고 하는데 실제 부모님 입장에서 돌아가면 부모님하고 이렇게 되면 여편네 편 못 들어 안돼. 그 당시엔 지금 남편 입장이 무진장 괴로운 입장이고요. 그것도 봐주셔야 되요. 떠나는 남이야 근데 이들은 피가 섞여 있어. 안 돼. 우리 와이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정해요. 당신하고 나하고 확실치 차이가 나는 게 나는 뭐 그렇게 막 어머니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는데 당신은 이렇게 딱 있다고. 마찬가지로예요.

부 인: 그건 또 엄마를 생각하면 저도 또 이해가 가요.

치료자: 그렇죠. 딸하고 엄마관계하고 사위하고 고부관계

하고는 또 달라. (4회기 상담).

둘째, 상호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변화해야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치료자는 남편의 문제와 부인의 문제 즉, 쌍방의 문제로 설명하면서, 한 사람에게만 부정적 낙인을 찍기 보다는 양자가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하도록 하였다.

<상호책임론>

치료자: 제가 와이프를 만나 가지고 한 차례 내지 주 차례 할게요. 사실 저는 명주 아빠를 한 차례 더 보려고 했는데, 대충 좀 감이 잡혔거든요. 이번에 요거로 끝내고. 와이프를 봐서 와이프의 온 가족을 또 봐야돼요. 그리고 남편을 피곤하게 하는 점도 있잖아요.

남 편: 예

치료자: 이거 부인 문제가 있거든요. 명주 아빠의 분리 문제도 있지만 명주 엄마의 분리 문제도 있거든요. 저는 문제를 다 쌍방 문제로 봐요.

남 편: 맞습니다. (2회기).

셋째, 치료자는 부부가 성장한 가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남편과 부인이 서로 자라온 가정문화와 성장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인식과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성장배경의 차이점>

치료자: 그면 자녀들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명주 아빠가정은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야. 이 친밀감이 아주 강한 관계야. 이쪽은 조금 보면은 표현이 강하지를 못한 스타일 인 것 같아. 그니까 명주 엄마 가정은 조금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죠. 이 쪽 가정에서 자라서 저렇게 까지 강하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뭐 죽을 죄졌다고. 근데 이쪽은 표현이 그렇게 싫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라올 때부터 조그만 일도 참다가 꼭 나갈 수도 있는 가정이에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이 조울 문제는 계속 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저하고는 됐으니까 융통성 좀 가져달라. 그제 명주 아빠의 애깁니다. 지난번에 침 한 번 오셨을 때도 잘 하고 계시는데 어쩔 때 조금 안 되면 명주 엄마가 쪼은다는 거지 집착을 한다는 거지. 근데 명주 엄마가 저한테 분명히 무슨 말씀 하셨냐면 내 일을 해야겠다.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한테 너무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고 내 일을 해야겠다. 내일을 하게 되면 명주 아빠에 대한 조금 그런 게 집착이 없어져요.

부 인: 예 맞아요. 근데 내가 또 그렇게 할려 그러니까 애기 갖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니까 또 애 갖자고 그러더라고요 애를 갖자고. (5회기 상담).

## 6. 치료적 결과

### 1) 이혼하지 않기로 함

부부는 내방하기 전에는 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부부치료를 통하여 이혼하지 않고 같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로 결심하였다.

저희는 일단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게 만약에 추석 때 그 상황이 지속됐더라면 아마 저희가 그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갈라설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됐었으니까 이 상태로 몇십년을 사느니 차라리 골치 아프지 않게 하자라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는 조건에 있었는데... 덕분에 이제 갈라설 뻔 한 가정이 어찌됐건 간에 다시 이렇게 추스리지는 단계로 온건 상담을 통해서 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발걸음은 굉장히 마음이 후련하고 가볍습니다. 명주 엄마도 늘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잘 사는 모습을 나중이라도 찾아 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9회기, 남편진술).

부부의 갈등도 상담회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감소하다가 종결을 앞두고서는 없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 명주 어머니 지난주 다녀가시고 트러블은 없었어요? 트러블 같은 건 없었어요. (8회기, 치료자진술). 예! (8회기 부인진술).

### 2) 인식의 변화

첫째, 남편은 자신의 역할부족으로 인해서 이혼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종결시점에서는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일방적으로 부인만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신이 부인을 많이 무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저도 처음에 교수님한테 상담하러 올 때 그래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보자. 나는 내 이성적 판단으로는 나는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절대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이제 진짜 교수님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아~ 정말 나한테

문제가 많이 있었구나. 내가 중간에서 이런 역할들을 잘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6회기, 남편진술). 저도 어떻게 보면 명주엄마를 이해하기 보다는 무시하는 경향이 많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명주엄마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고 (9회기, 남편진술).

둘째, 남편은 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특히 다 음 설명절에 시택에 내려가는 것을 부인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혼자서 내려가려고 하였다.

요번 설 때도 명주엄마가 당분간은 안 내려가는 걸로 생각은 일단 하고 있는데(치료자: 명주아빠가 그걸 버티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차피 명주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9회기, 남편진술).

또한 부부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 틀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였지만, 상담종결시점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근데 상담하고 나서 서로의 렌즈(세상을 보는 관점)가 진짜 틀리다는 것을 알았다는 저는 그것만으로도....(9회기, 부인진술).

셋째, 부인은 자신이 남편에게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부인은 남편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였는데,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교수님하고 이거 치료 받으면서요 명주 아빠 마음속에 내가 안주해 있었다는 거 그런 거 깨달았듯이 명주 아빠도 분명히 그거 가족 간의 그런 거로 인해서도 본인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예전엔 자기는 문제가 아예 없었다고 했으니까(9회기, 부인진술).

넷째, 부인은 남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남편의 변화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남편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믿을 수 있었다.

명주 아빠가 변하려는 노력은 요즘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뭐 어머니한테 그런 거 받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려 보려고요. 어머니한테.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 생일 때 전화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명주 생일 때도 전화 같은 거 안 해주거든요 어머니도 좀 한발 물러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명주 아빠가 노력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바뀐 거예요(8회기, 부인진술).

### 3) 남편과 원가족의 분화

첫째, 남편은 부인의 편을 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인에 대해서 못 마땅히 여기고 부인을 휘어잡으라는 아버지에 맞서서 부인의 입장을 두둔하였다. 남편은 이전과 달리 무조건 아버지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는 결혼을 해서 지금 명주를 낳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입장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아버지도 명주 엄마한테 마음에 상처 될 말하신 거 알고 계시니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버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2회기, 남편진술). 아~ 아버지 뭐 지금 술 잡수셨나 본데 아버지 세대하고 지금하고 같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가 뭐 온전히 이해하시겠습니까?(8회기, 남편진술).

남편은 부인에게 많은 비중을 두고, 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고부갈등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편을 들거나, 제 3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부인에게 더 무게를 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저울의 추가 예전엔 부모님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가능하면 명주 엄마 편에 기준을 두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여튼 요즘에는 고부간에 무슨 일이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기준을 명주 엄마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먼저 둔 다음에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요(8회기, 남편진술).

둘째, 남편은 할머니 생신 때에 부인을 놔두고 아들과 함께 부모를 찾았다. 시골에 내려가면 가족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남편은 부인이 아직 시집식구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댁에 부인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 시골에 내려가서도 부모에게 부인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니. 저희 할머니, 명주한테는 증조할머니데 올해 연세가 79 되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려갔는데 명주 엄마는 안 내려갔죠. 명주하고 저만 들어서 갔는데...아버지 같은 경우는 엄마 보다 조금 더 서운해 하셨죠 제가 얘기를

했죠. 명주 엄마가 아직까지 집에 내려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당장 보다는 어차피 궁극적으로 서로가 마음이 다 풀어지고 잘 되는 게 좋은 거니까 지금 당장 보다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명주 엄마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섭섭해 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길 했는데(9회기, 남편진술).

### 4) 부인의 자아성장

첫째, 부인은 자신감과 희망감이 상승하였다. 이전에는 사회생활을 두려워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직장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니 저도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지금 예전에 직장 다녔을 때 그 직장에서 오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소장님께서. 근데 오라 그랬었는데 사실 용기가 안 났었어요. 애 떼어 놓고 간다는 게.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조차도 오라. 그러면 자신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좀 움추려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또 그러면 당장이라도 갈 생각이예요. 근데 그 때는 두려웠어요(8회기, 부인진술).

둘째, 부인은 자기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취업을 위하여 보육교사가 자격증과정을 신청하기로 하였으며, 상담을 시작하면서 수업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종결할 때 쯤서는 컴퓨터도 공부하고 싶어 하였다. 부인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는 이유는, 향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자격증 따려고요. 집에서 할 수 있고 이러니까요. 보육교사 자격증 1년 과정을 제가 월요일 날 등록할 거거든요(8회기, 부인진술). 저기 금년 3월부터 계속 수영하였고요, 집앞의 여성문화회관에서 오후에는 컴퓨터 할려고 그랬는데 벌써 인원이 다 차 가지고 1월부터 컴퓨터도 다시 싹 배워 보려고요(8회기, 부인진술).

셋째, 부인은 상담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가지게 되었다. 부인은 이전에 우울증세가 있었고, 화도 자주 나곤 하였는데, 상담종결 시점이 되어서는 그런 증상들이 사라졌다.

(치료자: 우울하거나 이런 거 없으시죠 이제?). 예 지금은 없는데 전전..한 한달 전만 해도 허~ 갑자기 이렇게 확 화가 치밀어 갖고...(치료자: 분노?) 예. 그래 갖고 화가

확 치밀어 갖고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그런 적 있어요. 상담하면서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8회기, 부인진술).

또한 부인은 종결시점에서 희망감을 느끼고 있었고,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다. 부인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다음에 우울증세가 있었고, 상담받기 직전에는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내가 뭘 할걸 준비하려니까 희망이 생기니까, 지금도 지금 제가 수영하는 것도 막 신나거든요 그 시간만 해도 내가 너무나 신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못해도 뭐 신경 안 쓰고...(8회기, 부인진술).

#### 5) 부부간 의사소통 향상

첫째, 남편은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였다.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셔도 물건을 구입했다가도 부인이 일러주는 대로 세일 시간을 기다리기로 하고 구입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명주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 뭐 조금 더 있다 세일 이라든지 더 가격이 싼 게 나올 때 사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명주 엄마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가서 취소를 시켰습니다(7회기, 남편진술).

둘째, 부인은 마음 속의 불편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전에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시부모를 대변하고 두둔하였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었고, 이후로 부인은 남편과 갈등을 염려하여 불편한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상담종결시점에서는 부인이 남편에게 불편한 자기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남편도 부인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인정하였다.

지금 상황이 우리 어머니 친정이나 시댁에 사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치료자: 근데 그걸 표현을 하셨어요?) 예! 굳이 보내고 싶지 않다. 우리 잘 사는 거 지금 보내주고 싶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얘기했어요.(치료자: 그니까 명주 아빠께서는 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보내지 말자 지금 뭐(7회기, 부인진술).

## VI. 요약 및 함의

### 1. 요약

본 연구는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초기 부부에 대한 부부치료 사례연구이다. 부부는 결혼 5년차이며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총 9회기에 걸쳐 상담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부부 치료과정을 녹음한 테이프를 통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고, 축어록 및 기타자료를 근거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이혼위기를 만드는 결혼초기 부부의 개인적 특성,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초기 부부의 원가족 특성,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초기 부부에 대한 치료적 개입, 이혼위기의 결혼초기 부부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었고,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위기를 만드는 부부의 개인적 특성을 남편과 부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남편은 부인이 자신의 부모(시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였고, 남편은 부모와 부인의 갈등시에 자신의 부모(시부모)의 입장만을 부인에게 대변하였고, 의사결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멋내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비난과 모욕 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부인은 남편에게 집착하면서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고, 남편에게 반발하고 대립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감정을 참았다가 폭발시켰으며,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였고, 은유적인 의사소통을 하였고, 소극적 사회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부간의 서로 다른 개인적 특성들은 부부간에 보완점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부부의 이혼위기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특성은 남편과 부인의 부모들로 나눌 수 있었다. 남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강한 기대와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권위주의적 태도로 가족구성원을 대하였고, 통제, 비난, 모욕의 역기능적 의사표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의 어머니는 순종적이고 헌신적으로 살았고, 가족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고, 며느리에 대해서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남편의 원가족문화는 구성원의 응집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인의 원가족은 남편의 원가족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부인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미성숙한 모습이었으며, 알코올중독의 문제가 있었고, 잔소리와 폭력적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였다. 부인의 어머니는 생활력이 강하였고, 엄격한 생활방식을 강조하였고, 감정을 속으로 삭히다가 폭발하는 표현방식이었고,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인의 원가족 문화는 가족구성원의 개별성을 강조하였고, 종교 및 내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부부의 원가족들은 서로 다른 점이 많았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부부의 위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남편의 원가족 특성은 부인과 대립을 만들기도 하였다.

셋째, 이혼위기의 부부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부부간 의사소통의 촉진, 자아분화에 대한 강조, 타인관점의 이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치료자는 부부간 의사소통촉진을 위하여 부부에게 순환적 의사소통을 유도하였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표현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부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시켰다. 자아분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원가족과 분화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공감해주고, 핵가족이 성장하고 부부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분화가 필수적이며, 분화는 부모와 단절이 아니라 부부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자아분화를 위하여 가족치료적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제 사례 및 치료자의 경험을 소개하였고,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타인의 관점이해를 위하여 치료자는 부부의 상호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하였으며, 문제에 대한 상호책임성을 설명하였고, 부부가 성장한 가족문화의 차이점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치료적 개입의 결과는 부부가 이혼하지 않기로 함, 부부의 인식 변화, 남편과 원가족의 분화, 부인의 자아성장, 부부 간 의사소통 향상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부부치료를 통하여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부부갈등도 소거되었다. 인식의 변화는 남편이 자신의 역할부족으로 이혼위기가 나타났음을 인식하였고, 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부인도 자신이 남편에게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남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남편과 원가족의 분화는 남편이 부모 앞에서 부인의 편을 들기 시작하였고, 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실제적 노력을 하였으며, 시골에 내려갈 때에 부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부인의 자아성장은 부인의 자신감과 희망감이 상승하였고, 자기개발에 노력을 기울였고, 정서적 안정을 가지게 되었다. 부부간 의사소통 향상은 남편이 부인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부인은 자신의 불편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 2. 합의

이혼은 최근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이혼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결혼초기 부부의 개인적 특성과 아울러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합의는 다음과 같다.

결혼초기의 부부과업은 부부체계를 형성하고,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확대가족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가족의 위기가 발생한다 (Carter & McGoldrick, 1989; 유영주 등, 2007). 본 사례연구의 부부는 개인 및 원가족의 특성에서 서로 차이점이 컸으나 이런 차이점을 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부갈등을 겪었고, 이혼의 위기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초기단계의 부부는 가족생활의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 및 원가족의 특성들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부부라는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부부체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적 상호작용을 하며(오윤자, 1992; 임승락 · 권정혜, 1998; 이창숙 · 유영주,

1998).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Carrere & Gottman, 1999; Beckerman & Shepherd, 2002). 본 연구에서도 부부의 의사소통 방법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의 순환성을 강조하고 표현방식의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이것은 부부의 문제해결능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초기에 있는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남편의 원가족이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유교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하여 남자들은 결혼하여도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반면에 여성들은 출가의외인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원가족에서 남편의 원가족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전춘애 · 박성연, 1994; 김현정 · 김명자, 1999; 서연석 1999; 전연진, 2002; 김경자, 2004; 권정란 · 이인수, 2006).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남편이 자신의 원가족과 적절한 분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원가족과 분화가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부체계가 기능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자신의 원가족과 적절한 분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 아니고, 또한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치료자의 개입이 부부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었는지의 치료적 작용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것은 치료적 작용에 대한 설명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의 논문을 구성하여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수준에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다루기로 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른 자료들 보다 자료의 신실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치료자가 치료회기에서 부부들과 좋은 관계형성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상담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의식적 방어나 저항이 다른 자료들보다 적었고, 보다 솔직하고 심층적인 내용들이 자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권정란 · 이인수(2006).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한국가정관계학회지*, 11(1), 35-56.
- 김경자(2004). 기혼 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김정진 · 임은희 · 권진숙(2007).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경기: 서현사.
- 김현정 · 김명자(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

- 의 관계-청주시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 김혜선(1992). *결혼선택과정과 결혼적응정도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박태영(2002).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과 가족체계 이론을 적용한 포르노 중독자의 부부치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158-193.
- 박태영(2001). *가족치료이론의 적용과 실천*. 서울: 학지사.
- 박태영(2003).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방현주 · 이기숙(2002).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결혼 초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관한 연구: 유아기 가족의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39-54.
- 서연석(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오윤자(199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부부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209-229.
- 유계숙 · 장보현 · 한지숙(2006). 이혼 전후 가족상담 운영모형 및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59-96.
- 유계숙 · 최성일(2005). 이혼숙려부부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2), 57-92.
- 유영주 · 강학중 · 김밀양 · 김순기 · 김연 · 박정희 · 배선희 · 손정영 · 안재희 · 양순미 · 오윤자 · 이인수 · 이정연 · 이창숙 · 전영자 · 최희진 · 홍성례 · 홍숙자(2007).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 이경희(1997).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이선미 · 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 이영자 · 장영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정도 와 갈등관리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79-93.
- 이창숙 · 유영주(1998). *부부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Baucom과 Epstein의 인지행동적 모델에 기초하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71.
- 임승락 · 권정혜(1998). *부부간 의사소통행동과 결혼만족-성차, 요구 입장 차이 및 성격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98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09-123.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부부갈등,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행동, 행동문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전영주 · 이성희(2006). *협의이혼 청구자의 원가족 경험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91-203.
- 전춘애 · 박성연(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33.
- 정현숙 · 유계숙(2003).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조성경 · 최연실(2006).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 특성 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19.
- 천혜정 · 김양호(2007). *기혼자와 이혼자의 결혼 및 이혼과정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12(3), 5-23.
- 최정숙(2008). *결혼초기부부의 가족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3, 103-152.
- 통계청 (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http://www.nso.go.kr>
- Beckerman N. L., & Shepherd L.(2002). *Couple therapy: Identification of conflict areas*. *Family Therapy*, 29(2), 77-87.
- Carrere, S., & Gottman, J. M.(1999). *Predicting divorce among newlyweds from the first three minutes of a marital conflict discussion*. *Family Process*, 38(3), 293-301.
- Carter, B., & McGoldrick, M.(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a frame work for family therapy(2nd ed.)*. Boston, MA : Allyn and Bacon.
- Colapinto., J.(1991). *Structur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2)*, N.Y.: Brunner/Mazel.
- Friedman, E. H.(1991). *Bowen Theory and Therapy(pp. 134-170)*.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Goldenberg, I., & Goldenberg, H.(2001). *Family therapy: An overview*.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uerin, P. J., Fay, L. F., Burden, S. L., & Kautto. J. G.(1987).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A four stage approach*. N.Y.: Basic books.
- Harvey, D. M., & Bray, J. H.(1991). *Evaluation of an inter-generational theory of personal development: family process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and health distress*. Current issue fee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3), 298-325.
-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N.Y.: Norton
- Lawson, D. M.(1999). *Integrated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27-50)*. In. D. M. Lawson & F. F. Prevatt(Eds.), *Casebook in family therapy* N.Y.: Brooks/Cole.
-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ichols, M. P., & Schwartz, R. C.(2002).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Boston, MA: Allyn and Bacon.
- Olson, D. H., & Hawley, D. R.(1992). *Self-Training Counselor's Manual*. PREPARE/INRICH Inc.
- Papero, D. V.(1995). Bowen's family systems and Marriage. In N. S. Jacobson & A. S. Gurman(Eds.). *Clinic handbook of couple therapy*. N.Y.: Guilford Press.
- Patton, M. Q.(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 Sage.
- Shoham, V., Rohrbaugh, M., & Patterson, J.(1995). Problem- and solutions-focused couple therapies: The MRI and Milwaukee models. In N. S. Jacobson., & A. S. Gurman(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pp. 142-163). N.Y.: The Guilford Press.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Y.: Norton.
- Weakland, J. H.(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 R. Price(Eds.). *Therapeutic conversation* (pp. 136-145). N.Y.: Norton.
- Werner, O., & Schoepfle, G. M.(1987). *Systematic fieldwork*. 2 Vol. Beverly. Hills, CA: Sage.

- 접수일 : 2009년 03월 10일  
 심사일 : 2009년 03월 30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6월 08일